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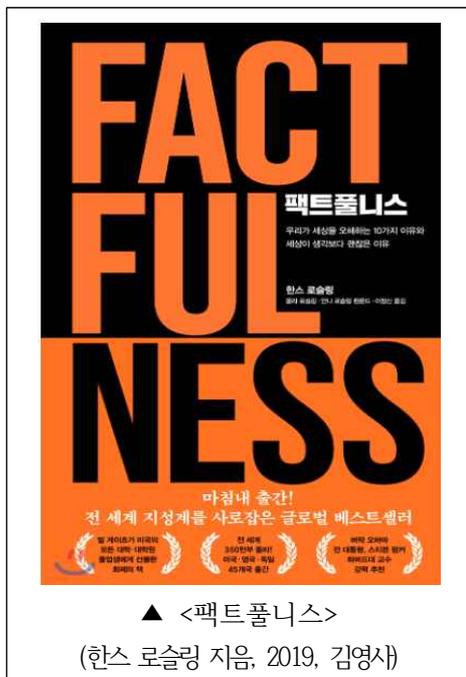
## 본능적 반응 대신 사실에 충실한 사고를

-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 -

교육연구원

길 현 주

책을 읽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진다. 심지어 ‘겸손’이라는 감정이 든다. 심리를 치유하거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일까?



▲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지음, 2019, 김영사)

저자는 한스 로슬링, 스웨덴에서 태어나 통계와 의학 등을 공부하고, 오해와 편견 등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몰두했다. 18년을 함께 연구한 아들과 며느리가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하나 저자는 안타깝게도 책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팩트풀니스’는 사실에 기반하여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비합리적 두려움을 잠재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는 것이다.(책에서는 ‘팩트풀니스’를 ‘사실충실성’이라고 번역) 나는 이러한 개념에 동의하면서도, ‘당연히 사실에 기반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

는 거 아닌가?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모르겠지만’이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런데 책을 읽어가면서, 사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본능이 있으며 이러한 본능을 억제하면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팩트풀니스’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저자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방해되는 본능을 10가지로 제시하고 본능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 본능 유형과 억제 방법 〉

본능 유형	주요 억제 방법
① 간극 본능	다수를 보아라
② 부정 본능	나쁜 소식을 예상하라
③ 직선 본능	선은 굽을 수도 있다.
④ 공포 본능	위험성을 계산하라
⑤ 크기 본능	비율을 고려하라
⑥ 일반화 본능	범주에 의문을 품어라
⑦ 운명 본능	느린 변화도 변화다.
⑧ 단일 관점 본능	망치가 아닌 연장통(도구 상자)를 챙겨라
⑨ 비난 본능	손가락질을 자제하라
⑩ 다급함 본능	하나씩 차근차근 행동하라

(366쪽 재구성)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이 갔던 본능은 단일 관점 본능과 비난 본능이다. 아마도 내가 흔히 하는 인식의 본능이지 않나 싶다. 단일 관점 본능은 단일한 원인, 단일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성향을 말한다. ‘Simple is Best’ 라는 광고 문구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단순한 생각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자네가 주장하는 것을 한 마디로 하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봤던 터라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다. 무언가 통찰력도 있는 것 같고,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관점 본능은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저자는 단일 관점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가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생각을 증명하는 사례만을 수집하지 말고, 내 생각을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 망치라면, 드라이버, 줄자 등을 가진 동료들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단일 관점 본능을 자제하고 다양한 연장이 들어있는 연장통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비난 본능이다. 비난 본능은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다. 무언가 잘못되면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랬으려니 생각하는 건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중요

성을 과장하여 비난 대상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다. 저자는 비난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악당보다는 원인이 얽힌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쏟으라고 이야기한다. 반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영웅에게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도 영향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저자는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간의 진화를 거쳤고, 앞서의 본능은 우리 조상이 소집단을 이루어 수렵과 채집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 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덕분에 우리는 즉각적인 위험을 피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본능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이 과연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만 작동할까? 책을 읽을수록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난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등으로 인해 상대를 오해하여 생긴 비합리적 두려움과 화남, 서운함은 아니었는지? 저자의 주장이 모두 옳은가 등의 논의는 별도로 하고, 팩트풀니스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덤으로 얻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